



루터의 도시를 가다

14

비텐베르크에서의 결혼 2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카타리나 폰 보라(Katharina von Bora)는 루터의 글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수도원, 수녀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제자도의 삶을 산다고 믿는 이들에게 충격을 가져다줬다.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게 싸여진 담은 결별을 의미했고, 그 안에서의 경건은 사실상 격리였다. 그들이 영위한 담 안에서의 생활은 헌신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착취였고, 수도자들 간에 굳어져 가는 위계질서는 노예로 변질되어 가는 계급 사회였다. 하나님은 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담 밖에 펼쳐진 바로 저 세상에 계셨다.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속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믿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세속사회라고 불리는 저 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그

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했다. 수도원, 수녀원을 탈출하는 행위는 일종의 작은 출애굽이었고, 이 곳저곳에서 ‘출애굽’이 일어났다.

보라는 루터에게서 복음 안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배웠다. ‘모든 신앙인은 만물을 섬기는 종이면서, 동시에 만물의 주인이다’는 주장이 그녀를 강타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있었던가.’ 보라는 동료 수녀들과 함께 수녀원 탈출을 감행했다. 수녀원이 고용한 용병들에게 쫓기며 도착한 곳이 비텐베르크였다. 종교개혁의 교두보였고 새로운 믿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피성이었다. 거기에 루터 선생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다.

비텐베르크에서 루터를 처음 만났을 때 보라는 상당히 수줍어했다. 그녀는 천성이 활달하고 쾌활했다. 하지만 수많은 신앙인들에 둘러싸여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루터에게 연정을 느끼기에는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 루터 동료 중 한 멋진 기사가 그녀에게 호감을 표했다. 둘은 가까워져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됐다. 남자는 귀족이었다. 하지만 가톨릭 신앙을 신봉하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탈출한 수녀와 결혼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보라는 부친의 호령을 거부할 수 없어 고향으로 귀환하는 남자와 결별해야 했다. 보라는 그러나 꾀꿀했다. 그만한 일로 기죽을 보라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려했던 그녀가 아니었던가. 루터의 집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들끓었다. 학생들, 동료들, 교회지도자들, 후원하는 귀족들, 조언을 구하는 방문객들, 호사가들, 일꾼들.... 수많은 사역, 그리고 살림을 루터 혼자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이 때 집안 구석구석에서 살림을 돕고 있는 보라가 눈에 띄었다. 루터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